

전국적인 3.1 만세시위의 현장

한국근현대역사기행



1. 전국적인 만세 시위의 물결

1) 서울에서 다시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하다

- 3월 5일, 학생 주도의 남대문역 시위 '오전 9시, 남대문 역에 모이자!'
- 강기덕(보성전문), 김원벽(연희전문), 한위건(경성의전) 등 학생대표 등
- 오전 9시, 학교를 동맹휴교하고 남대문역 앞에 집결한 학생들 4000~5000명 혹은 1만명
- 학생대표(강기덕, 김원벽)가 인력거를 타고 '조선(대한)독립'이라고 쓴 깃발을 들고 시위대 선도
- 시위군중의 '독립만세' 행진



1. 전국적인 만세 시위의 물결

-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, 이화학당, 정신여학교 등 여학생도 참여
- 시위군중 행진 코스
 - 덕수궁 대한문(고종이 살던 곳), 각국 영사관(열강에 독립 의지 전달, 특히 프랑스, 미국), 남산 조선총독부 청사
- 학생들의 역할
 - 도심 내 군중 시위와 단체행동의 전통 만들어짐
- * 역사현장- 왜 남대문 역에 모였나?
 - 남대문역=현재의 서울역
 - 1899년 제물포(인천)-노량진 경인철도 완공, 1900년, 한강철교 완공
 - 서울의 관문 남대문역, 1922년 경성역, 1925년, 현재 모습 개축



역사현장 남대문역(현 서울역)



역사현장 남대문역(현 서울역)



1. 전국적인 만세 시위의 물결

- 3월 22일 노동자대회, 3월 27일경까지 파업, 상인 휴업 등
- 3월 23일 이후 500~1000여 명 군중들이 모여 동대문, 고양군, 청량리, 왕십리, 마포, 양화진, 구파발 등등 곳곳에서 집회, 독립 만세
- 연천군, 시흥군, 김포군, 양평군, 강화군 등으로 시위가 확대되면서 점차 과격해 짐
- 헌병주재소 습격, 면사무소 습격, 전차에 투석, 면장 위협 등
- <-헌병은 공포탄, 발포, 곤봉 구타



1. 전국적인 만세 시위의 물결

2)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만세운동

- 1919년 3월 1일 서울과 평양에서 시작
- 3월 초순 북부지방, 중순 남부지방, 하순 중부지방으로 퍼짐
- 4월초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 절정
- <= 일제 헌병 경찰 군인을 동원한 탄압
- 4월 중순 이후 시위 축소
- 전국적으로 100만~혹은 200만 참여, 1600여 회 만세시위



1. 전국적인 만세 시위의 물결

- 평양지역

- 3월 1일 장로교, 감리교, 천도교 세력이 동시에 집회
- 독립선포식(독립선언서 낭독, 대형 태극기 게양), 시위대 행진, 평양 경찰서 포위, 시위대 경찰 난투극, 400여명 검거

- 대구지역

- 3월 8일 경상도 지역 시위 시작. 1918년 대구 인구 35878명중 일본인 9997명(약28%)이 대구의 경제권 장악
- 서문 밖 시장 장날, 학생들이 시장 군중에게 '대한독립' 깃발,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독립선언서 낭독<-대구 주둔 일본군80연대 출동



1. 전국적인 만세 시위의 물결

- 함경도 단천군
 - 천도교 조직 주도, 3월 10일, 독립선언식, 만세와 대형 태극기, 1000여명 군중 시위 행진
 - 헌병 발포로 7명 즉사, 142명 체포됨
 - 3월 12일 시위 격화, 단천군청 습격
- 천안 병천 아우내 장터
 - 이화학당 유관순은 3월 5일 남대문 시위에 참석한 후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향
 - 4월 1일,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독려하다가 부 유중권, 모 이소제 희생



1. 전국적인 만세 시위의 물결

- 1500여 명이 헌병 주재소 진입. 조선인 헌병보조원에게 “너는 보조원을 몇 십년을 하려고 하느냐?” 꾸짖고, 주재소장에게 “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, 어째서 무기를 사용해 같은 민족을 해치는 겁니까?” 항의
- 유관순과 숙부 유중무 징역 3년, 서대문 형무소에서 1920년 3월 1일 다시 옥중 시위 주도. 고문 끝에 9월 순국=> 유관순 열사의 탄생
- * 여기서 잠깐! 열사와 의사
 - 유관순 열사(烈士) cf. 안중근 의사(義士)



유관순 열사의 탄생



1. 전국적인 만세 시위의 물결

-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
 - 3월 25일~26일, 29~31일 면사무소 앞 만세시위
 - 시위 군중은 면장과 면서기를 끌어내 태극기를 손에 쥐어주고 만세를 부르며 함
 - “조선은 곧 독립국이 될 것이니, 일본의 정책을 실행하는 관청은 필요 없습니다...순사주재소, 면사무소, 우편소 등을 파괴해버립시다”
- 제암리 학살사건
 - 4월 5일, 경기도 수원군 제암리 발안 장터
 - 1000여명 태극기 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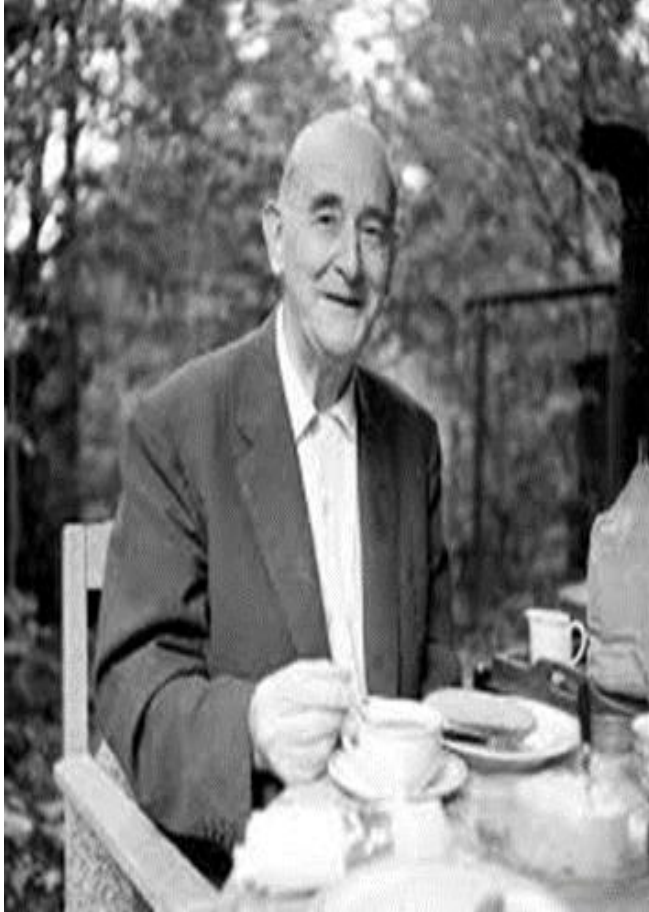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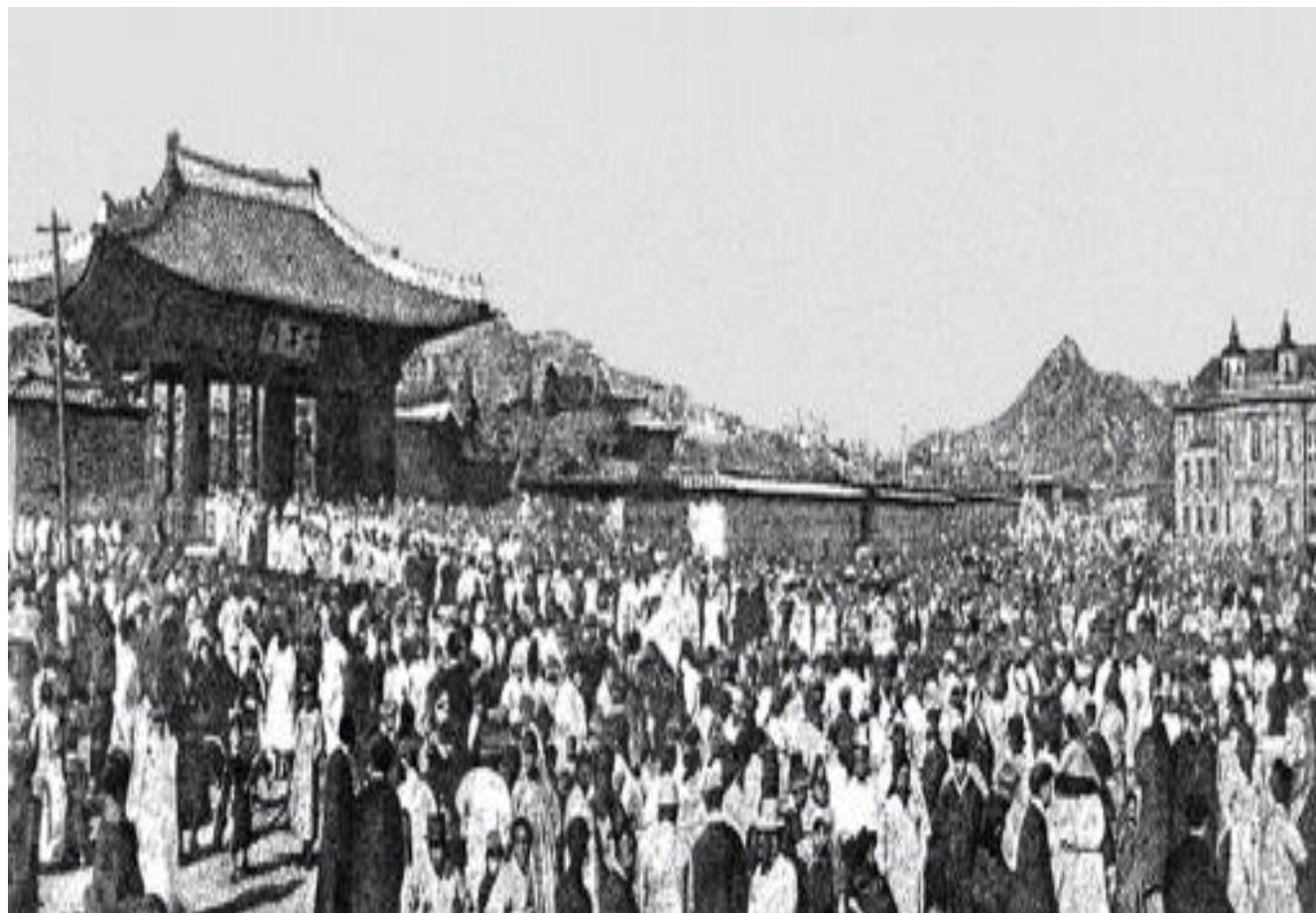
1. 전국적인 만세 시위의 물결

- 시위행렬과 경찰 충돌, 순사부장 사망
- 4월 15일, 아리타 도시오 중위 인솔 군인 20명이 제암리 포위
- 20세 이상 남자는 모두 예배당에 모이게 한 후 문을 닫고 방화
- 23명(남자 21명, 여자 2명) 사망
- 캐나다 출신 선교사이며 세브란스 의전 교수 스코필드 (F.W.Schofield;한국명 석호필)이 사건현장 사진을 찍고 보고서 '제암리의 대학살'=>The Shanghai Gazette, 1919.5.27.
- 평양 맹산 학살사건; 3월 10일 맹산보통학교에 모인 천도교인 100여명을 군인과 헌병이 조준사격(51명 즉사)



스코필드와 앨버트 테일러/딜쿠샤





2. 3.1운동에는 누가 참여하였나?

- 연인원 100만~200만 중 피검자 1만9525명, 3~4월 체포자 2만 6,713명
- 7,500명 살해, 1만 6000여명 부상(도면회, 3.1운동과 조선총독부의 사법대응, 3.1운동100주년총서 3, 휴머니스트, 2019, 147쪽)
- <-사망자 최소 6,600명에~최대 7,500명 추산(당시 전국 2509개 면 중 40.4%인 1013개 면에서 시위 발생. 그중 7500명이 사망했다면, 1개면 평균 7명. 국사편찬위원회 DB는 최소 725명~최대 934명 정도 현장 사망자수(박찬승, 1919, 다산초당, 2019)
- 민족대표 33인 독립선언 준비(종교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연결)-> 학생 만세시위 시작-> 전국 각지 농민, 노동자 등 모든 계층 만세운동 참여, 확산



2. 3.1운동에는 누가 참여하였나?

- 만세운동의 확산: 서울과 평안도 등 서북부->남부, 동북부/ 교통 편리한 철도 연변->산간
벽지 방방곡곡으로 확산하는 양상
- 직업별 농민 55.6%, 학생, 상인, 일용 노동자 순
- 종교인 489명(2.5%); 평안도와 함경도, 경기 서남부(장로교), 경기도 북부, 강원도, 충청
남북도(감리교)
- 연령 20대 37.5% 청년학생운동
- 신분 대부분 평민 출신. 구 양반출신 적음
- 여성, 기생도 적극 참여. 최초의 여성 참여운동, 구속자 2.4%
- 3.1운동 참가 기소자의 죄명은 보안법, 소요죄(93.5%), 출판법 등 위반(보안법=정치에 관
해 불온한 언동, 동작, 타인 선동 교사행위/출판법=독립선언서 인쇄,반포)



3. 3.1운동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?

- 3.1절 기념행사와 유관순 이미지
 - 태극기와 독립만세의 상징성
 - 반일 저항 vs 친일 매국
 - 반일과 친일, 애국과 매국의 이분법 cf. 회색지대
 - 저항적 민족주의, 민족의식 형성의 매개체
 - 한민족의 역사적 DNA로서 반일감정, 항일의식
- => 3.1운동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?
3.1운동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?

